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영국사 은행나무

물 위에 뜬 얼음처럼
머리끝으로 물구나무선 체온
얼얼한 얼굴로
산문이 닫히는 저문 절집
맞배지붕 아래
오래 소피 보는 삼신할머니마냥
보든 말든 그렇게 앉아
가지를 퍼뜨리고 있는
영국사 은행나무
온 동네 개똥이랑 개똥은 다 모였나
구린 은행이 여기저기 떨어져
저무는 절집 산 공기를 싸잡아들고
늙은 선승은 없어도
화두처럼
노란 물감을 가득 채운 다연발 폭탄처럼

〈시집 자작나무 눈처럼에서 발췌〉
寧國寺 : 충북 영동 천태산에 있는 절



이종수

- 시인, 전남 별교 출생. 1998년 조선일보 신문춘예 시 당선
- 충북작가회의 회원. 월간 엽서시 발행인. 시집 〈자작나무 눈처럼〉

CONTENTS

2011. 11. Vol 213

Cover Story



충청북도의회가 지난 9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3개 시·도의회 공동주최로 「국립암센터 오송分院 유지를 위한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04 충청도의회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
 - 암센터 오송유치
 - 충북대 구조개혁 지정 철회 촉구
- 06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건의문 채택
- 07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시작
- 08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달라져요
- 09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 활동상황
- 16 주요 처리의안
- 18 도정질문
- 21 5분 자유발언
- 26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28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 9월2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3개 시·도의회 공동 주최로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유치를 위한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암센터 오송 유치-충북대 구조개혁 지정 철회 촉구 충북도의회,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

● 오송 유치 대토론회·도민 서명운동 전개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보조를 맞추면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도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한 도민운동에 앞장서 성과를 거둔데 이어 곧바로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9월2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3개 시·도의회 공동 주최로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유치를 위한 충청권 대토론회」를 열었다. 충북대병원 최영석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

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익환 고려대학교 교수, 조현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실장, 이성기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 임헌경 충북도의원, 김광중 충북도 바이오밸리 추진단장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에는 식약청을 비롯한 보건의료 국책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입지한 충북 오송지역이 유치전에 뒤늦게 뛰어들든 대구보다 경쟁력에서 앞서는 최적 입지라고 강조했다.

다. 이어 국립암센터 분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연계한 바이오클러스터의 허브 역할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우수한 연구진·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주기반 구축 △바이오 의약품 을 중심으로 한 항암신약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도의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논리를 적극 홍보하

면서 범도민 서명운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과 충남, 대전시 등 충청권 3개 시·도는 지난 8 월 암센터 분원 오송유치를 공동 추진키로 결의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1월 초까지 충청권 1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구조개혁 대학 지정 “객관성·공정성 결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월 23일 국립대학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 충북대학교를 포함시키자 대학 구성원과 충북 도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도 곧바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지정 철회 건 의문」을 채택하고 충북지역 인재양성의 거점·중심대학인 충북대학교를 포함시킨 것은 지역적 형편이나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올해 정부로부터 학부 선진화대책으로 지정받고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충북대학교를 구조개혁 추진대학에 포함시켰다면 구조개혁 지정 과

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북대는 10월 26일 이택원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김형근 도의회 의장도 위원으로 참여해 충북대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했다.

한편 이광희 의원(교육위)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하달한 평가기준을 1주일 만에 변경했다”면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 충북대가 포함된 것은 정부와 청와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및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해당지역 대학 대신 충북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문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충북대학교는 금년 5월 정부로부터 학부선진화 대학으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충북대학교를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충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으며 더불어 도민이 입는 심적, 물적 피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충북에 대한 고등교육 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재심사 해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립대학 평가 시 지역적 형편이나 대학별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 잣대로 정한 평가 지표, 특히 ‘학생 취업률’과 ‘총원율’에 대해 재검토하여 배후지가 약한 지방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학 후진화와 황폐화의 논란에 휩싸인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건설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농수산업·중소기업 근본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익과 주권 상실한 불평등 협정”

충청북도의회가 정부와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 비준 추진에 앞서 불평등 독소조항 제거와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불평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물부장관, 국회의장, 정당 대표에게 보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국가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협정은 국익과 주권을 상실한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정이 체결되면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12조 2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농어업에 사상 최대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농수산업 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국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함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익과 주권을 침해당하는 불평등한 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독소조항임에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영역이 붕괴되고 그 자리가 시장에 내맡겨 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등 총 12조 2,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농어업에 사상 최대의 피해를 초래할 전망이며 특히 축산분야에 가

장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익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 협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주시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권침해 소지가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평등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http://assem.cb21.net>

9월부터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시작 영상으로 의정활동 알리며 도민과 소통



충북도의회가 인터넷 생방송으로 도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을 알리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방안으로 9월 20일 제303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인터넷 생중계는 9대 의회의 5대 운영과제 중 하나.

지난 제8대 도의회가 시도한 후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도의회는 이번 고품질 인터넷 영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도민들에게 전달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충북도의회 홈페이지(<http://assem.cb21.net>)에 접속한 후 인터넷방송(생방송)을 선택하거나 인터넷방송 홈페이지(<http://assembtv.cb21.net>)에 접속하면 된다. 인터넷 생중계에서는 도

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도민들의 이용현황 등을 파악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인터넷 생중계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 도민 참여공간 대폭확대

도민 참여공간 확대와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의회 홈페이지(<http://assem.cb21.net>)를 새롭게 개편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역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9대 의회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종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에게 가감 없이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그동안 일부 기능이 미비해 사용이 불편했던 전자회의록시스템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회의록 검색·열람 등 기존의 전자회의록 기능 외에도 영상회의록시스

템을 신규로 도입하여 회의 동영상과 발언내용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도민참여공간을 확대 했고 방청·견학 신청도 쉽게 했다.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토론 코너를 신설했으며 이의 처리상황을 LMS(long message service)를 통해 도민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원 개인 홈페이지 기능도 강화해 의원별 의정활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 사용자들을 위하여 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전자회의록 열람, 자유토론방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달라져요”

기간 연장·도민 제보 접수 ... 집행부 견제 강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늘어나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되는 등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된다.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매년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에서 시행하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올해부터는 14일로 연장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감사관련 서류 제출 지연과 촉박한 감사일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도의회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하고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제보의 방’을 개설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도민제보를 접수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위원회별	사무감사 대상기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정책복지위원회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감사관실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행정문화위원회	공보관실, 행정국,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산업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건설소방위원회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 추진단, 소방본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충주학생회관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교육지원청

제보와 좋은 의견을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제보내용 |

-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
- 예산 낭비사례
-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
- 기타 도민 불편사항

| 제보방법 |

- 도의회 홈페이지(도민제보의 방. <http://assem.cb21.net>)
- FAX : 043-220-5159)
- 우편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지,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도민제보 담당자 앞

의회운영위원회

(제303·304회 임시회)

연간 총 회의일수 10일 연장



▲ 의회운영위원회는 임시회 중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감담회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희)는 제303회 임시회 회기 중 두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9월 20일 실시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는 감사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불출석,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에서 13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회의 일수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결산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상과 징계요구가 가

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의 개정으로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대 집행부 견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제304회 임시회 회기 중 두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의회사무처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실시하기로 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간 열기로 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03·304회 임시회)

분만취약지 시범사업 점검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병원인 영동병원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각종 사업들을 심사했다.

특히 도정학술용역비와 관련하여 용역기간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용역내용도 확정하지 않은 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과 초등학교 CCTV 연계 구축사업의 사업지연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도정업무학술용역(POOL)' 1억원과 '행정통신망운영 관리비(일반전화사용료)' 1,300만원을 삭감했다

영동병원 방문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개설한 산부인과병원의 현황과 운영방안을 듣고 양질의 서비스와 운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제304회 임시회 중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197건)의 건을 확정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관리대상 연구용역의 범위를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하고 연구 결과물에 관계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토록 하여 내실 있는 연구용역 수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하려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예산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액과 관계 없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모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 9월 22일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병원인 영동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03·304회 임시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확인



▲ 9월 22일 진천·음성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음성에 건설 중인 광역쓰레기 매립·소각시설과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을 현지확인 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과 글마루작은도서관(청주시 개신동 소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위원들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점검 시 ‘처리시설의 증설도 중요하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과 분리수거 미이행 등 불법쓰레기의 근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마루작은도서관 방문에서는 도민의 생활 주변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6년 제정 후 문화·예술·체육 등 11개 부문에 걸쳐 사상해 오다 「공직선거법」 저촉 및 추천대상자 감소 등으로 2007년부터 중단됐으나 수상대상자 자격을 확대 부활하는 것으로 수상부문을 수정 의결하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그리고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역을 현지확인하고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가졌다.

또한 충주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주의료원의 임직원 기숙사 신축부지 현황을 방문하여 현황을 듣고 진입도로 선형개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진천·음성지역의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센터 신축부지 방문에서는 비즈니스센터가 혁신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주문한 후 혁신도시 경제문제로 이견이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의견조율에 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까지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중임을 설명한 뒤 토론자 및 방청객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03·304회 임시회)

서민경제 안정화 노력 주문



▲ 9월 22일 옥천 포도연구소를 방문하여 이기열 포도연구소장으로부터 포도 품종인 「자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극적인 연구와 홍보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제303회 임시회 회기 중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2건에 6,078만원을 삭감하고 주요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9월 21일 실시한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물가 안정과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조를 통해 공급지역을 확대해 줄 것과 최근 정전사태로 인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모든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발굴하는 ‘에너지절약 가족 캠프’ 사업 등 서민경제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경위 소관 주요현안사업장인 축산위생남부지소와

포도연구소, 내수면 남부지소를 방문하여 건의 사항을 듣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304회 임시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국익과 주권 보호를 위해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정은 국익과 주권을 상실한 불평등한 협정이고 또한 농어업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익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 협정이 돼서는 안 되며 먼저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청와대, 외교통상부장관, 국회의장, 한나라당, 민주당 등 정부와 정치권에 보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03·304회 임시회)

관련단체·자문위원 간담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과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노력, 사전점검 강화와 정확한 수요예측 및 객관적 기준에 의한 예산지원 대책 등을 주문했다.

지역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현장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고 평가하고 지역 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도내 건설업체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도의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권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은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

축미 보존,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한옥마을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304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201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자문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황희연 교수(충북대)가 「밀레니엄타운 현황 및 향후추진방향」, 박병호 교수(충북대)가 「천안~청주 공항 간 복선전철」 그리고 김지학 교수(충주대)가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타운 건립」에 대해 발표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장을 방문해 소방본부와 각 시·군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9월 25일 건설소방위원회는 주요현안사업 문제점에 대해 의견 수렴과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위원회

(제303·304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 10월 19일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청원군 외천초등학교 토지 매각현장을 방문해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작은학교 우수사례학교를 방문했다.

9월 22일 경기도 우수학교인 광주남한산초등학교 방문에서는 특성화된 교육활동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와 함께 수업업을 직접 참관하며 특성화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9월 29일 청주농고와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제40차 전국 FFK(한국영농학생연합회)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주역으로 육성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전시작품을 둘러본 후 우리지역 참가자들과 행사진행 실무자들을 만나 품격 있고 성공적인 국제공예비엔날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304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10월 24일 심사한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 불용재산 매각 대상에 대한 현지점검을 한 후 이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어 학교에서 학부모 경비 부담이나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사안을 심의할 때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제안과 참여를 확대하는 조항들을 신설하여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들을 반영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3·304회 임시회)

2회 추경예산안 수정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제303회 임시회 회기 중인 9월 28일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2억원과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서관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도정학술용역 사업비 5억원 중 1억원, 충북의 얼뿌리 찾기 사업 연구용역비 5천만원 중 2천만원, 충북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 8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1,120억 108만 5천원보다 462억 9,981만 2천원이 증액된 3조 1,583억 89만 7천원으로 의결 됐으며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사업과 관광기반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 재정건정성 도모 등에 집중 투입하도록 편성됐다.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예산액 3억 9천만원보다 8억 5천만원이 증가한 12억 4천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9월 30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희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뒤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 9월 28일 충청북도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수 의원 대표발의)

- 우리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성품종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운용 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4일 연장되고 제2차 정례회 기 중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회의일수를 개정하고자 함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충북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정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충북문화재단 재산으로서 기금의 성격과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산으로 조성하는 과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도지사 대표발의)

-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동향관리 등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함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 의원 대표발의)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정현 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방정제한 사유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의 재산(기금)으로 전액 출연하는 등 충청북도 문화예술정책 변화에 따라 기금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도지사 대표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중 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함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 태로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유완백 의원 대표발의)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개정(제10559호, 2011.4.5)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거 조례에 위임하여 정했던 과태로 경감사항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위임의 근거를 상실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지사 대표발의)

- 현실과 불부합한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함께 하는 충북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추천 범위를 확대 운영하며 시상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상규정의 삭제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권기수 의원 대표발의)

-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 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한옥마을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필 의원 대표발의〉

- 충청북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책무성 강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구 주민수 기준 조례안

〈하재성 의원 대표발의〉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70분의 1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주민이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주민 총수 대비 연구 주민 수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도지사 대표발의〉

- 2009년에 차입한 '충북미래관 매입' 과 관련된 지방채의 금리가 높아(4.85%) 조기상환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1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지방채 상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의를 개정함은 물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지사 대표발의〉

- 공유재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도지사 대표발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시 정부시설 부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제안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무상대부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지사 대표발의〉

-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기능직 공무원이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고자 함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쉽게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조례안 <장병학 의원 대표발의〉

- 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 함양 및 건전한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대표발의〉

-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명을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천 의원 대표발의〉

- 보조금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 이의신청" 등의 조문 신설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 대표발의〉

- 청남대를 활용한 대통령역사교육관을 건립하고,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센터 신축 및 충주의료원기숙사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사업계획에따른 시험포장 대체 부지를매입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교육감 대표발의〉

- 청주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행정구역 학교군에 추가,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행정구역 학교군에 추가, 보은군 속리산중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학구명칭 변경, 진천군 학교폐지에 따른 학구 통합 및 폐지하고자 함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문 채택의 건 <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 교육과학기술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발표에 충북지역 인재양성의 거점·중심대학인 충북대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 철회를 강력 건의하려는 것임



제303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이수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

[질문]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압축포장시스템」 도입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 향후 폐기물 발생 추이를 관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천군·음성군과 면밀히 협의하여 「폐기물 압축포장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천·음성 혁신도시 주변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지원대책은 수립돼 있습니까?

[답변]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상세히 분석한 후, 기존 광역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방안과 혁신도시 주변에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규모 절개지 산사태 위험지구 현황 및 보수·보강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 도에서는 대규모 절개지에 대하여 산림재해위험 특별관리 대상지로 분류하여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당 사업장 관계관에게 보수·보강토록 사전조치하여 자연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백곡저수지 사면의 안정성 검토 결과는 나왔습니까?

[답변] 총저수량이 26,619천톤으로 내진 특등급 설계 기준을 적용하였고 전면에 4~5m정도 성토를 합니다. 1회 30cm씩 층다짐을 실시하고 검사 시험도 반영 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위관리를 하고 제당 및 물넘이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사장 하류에 저류시설을 설

치,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통로박스 설치 관련

[질문]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매산마을 앞 통로박스 설치 관련, 동일사례 재발방지 대책은 강구돼 있습니까?

[답변] 앞으로는 국가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관련 민원에 대해 공사 시행청의 현지조사 시 우리 도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최적방안 도출을 조율하는 등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출장소 설치 문제

[질문] 진천·음성 혁신도시 전담 도출장소 설치에 대한 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 혁신도시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떠한 행정체제가 좋은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양 군의 의견이 한데 모아지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특히 도 의회와도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절한 행정체제가 구축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진천·음성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방안은 마련돼 있습니까?

[답변] 양 군의 의견을 들어 행정구역 변경·조정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권역을 총괄·관리할 기구를 구성한 후 이 기구에서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김 종 필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시·도비 반환금 발생 사유

[질문] 충청북도의 결산서 작성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각 사업부서에서 1년간 사업 집행된 내역을 관계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의회에 승인신청하게 됩니다.

[질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 졌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2011년도 1,2회 추경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 세입부분에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시·군 보조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까?

그런데 2010년도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 시·군 보조사업비는 대부분이 지출이 되었고 따라서 집행 잔액은 없는 것으로 결산이 되었는데 어떻게 시도비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까?

[답변] 2010년도 1회계연도에 지출되어 남은 금액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0년도 결산이 끝난 후 2011년도 세입예산으로 처리됩니다.

[질문] 지방재정법 51조를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중 제2항 가 목에 세출예산액과 사목에 지출액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에 대한 결산을 명백히 하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산은 명백성의 원칙도 있지만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월되는 사업은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반납을 받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순기가 도와 시·군이 같아 결산 후 보조금반납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추경에 편성한 후 도에서 세입처리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결산서는 사실과는 다른 결산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 결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군에서 집행되는 부분 중 연도폐쇄기 이후에 정산이 완료되면 부득이하게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고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질문]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교부금 교부일자를 확인해 보니 상당부분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결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 사업추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업부서에서 실수로 누락된다면 이를 확인할 안전장치가 없다고 생각되고 향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조금 통합관리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답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목록을 작성해 관리하고 추진상태를 점검해서 사업이 종결되면 보조금을 반납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04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장 선 배 의원(정책복지위원회)



청주·청원 통합 대책

[질문]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충북도는 어떤 입장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답변]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 속의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청주시와 청원군과의 협조체제로 법적 이행절차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통합촉진을 위한 청주·청원 도로망을 조속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문]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의 문제점 및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청주·청원 간 재원분담 및 요금 단일화 시행 시기는 미합의 상태이며 2012년 상반기 중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향후 통합결정 일정을 고려하여 조기 시행 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청주·청원 외 타 시·군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답변] 북부권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개발 촉진하고 남부권은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구역 지정 추진으로 획기적인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중부권은 태양광산업 특구 육성과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등을 통한 첨단산업의 허브 육성과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질문]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답변]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3조 3,516억원이며 집행액은 3조 5,261억원으로 집행율은 105%입니다. 문제점은 조기집행 미이행 시 70%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연말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사업추진 지연 및 과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됩니다.

[질문] 채무 증가원인과 상황 등 관리대책은 수립돼 있습니까?

[답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수결손 보전, 정부 재정확대정책에 따른 투자수요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여 채무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채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에는 100억원을 저금리채로 차환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정산분 등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 계획

[질문] 솔라밸리 마스터플랜과 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마스터플랜은 충북을 태양광산업의 세계적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솔라밸리 마스터플랜과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중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 육성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태양광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답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태양광제품의 시험분석과 성능 평가를 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기술 개발과 제품사업화를 촉진하고, 2014년까지 총 203억원을 투자하여 태양전지센터 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베드사업을 통하여 태양광 연구기관 및 태양광기업들이 집적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03회 임시회

“소수직렬 배려하는 인사를”



박 문 희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충북도의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인사문제로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정의 책임자이신 이시중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승진 심사 시 사기 진작과 조직의 역동성을 위해 소수직렬을 최대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내 몇몇 과장급 직위가 전문분야 직급이어야 함에도 행정직 등 복수 직급으로 임명해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

니다. 국장과 과장 대부분이 전문분야의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향후 인사이동 시에는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정년 연령이 57세부터 61세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공무원의 정년 연령을 정부에서 60세로 규정한 것처럼 기관별 차별화된 정년 연령을 60세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비례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비정규직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꿈나무 육성해야”



하 재 성 의원

우리 충북이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각종 경기장이 잘 갖추어진 세계적인 스포츠스타 양성의 메카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걸출한 스포츠스타 육성에도 힘쓰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대회 유치와 이로 인한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를 거울삼아 다방면에서 많은 스포츠 꿈나무들의 육성과 걸출한 스포츠스타를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이시중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스포츠스타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충북에도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1종 종합경기장을 가진 스포츠타운 건설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의 잔치로 만들어 줄 빙상 꿈나무들이 훈련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장 건설도 이 시점에서 전향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북도 체육인재 양성과 스포츠스타 발굴, 앞서가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 이를 활용한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스포츠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합 충북문화관 건립



방 병 학 의원

생명의 땅, 태양의 땅인 우리 충북은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선배 문항의 충북작가들이 한국현대문학의 초석을 이뤄 오셨습니다.

반봉건적인 천민계층을 앞세워 서민들의 생활양상을 형상화한 '임꺽정'을 발표한 괴산의 벽초 홍명희 소설가, 농민들의 삶을 예찬한 음성의 이무영 소설가, 현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는 김수현 드라마 작가 등 많은 충북문인들께서 청풍명월의 문항을 자랑스럽게 꽃피워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문화공보부가 주관한 '청주문화의 달' 사업결과 보고회(2008.12.4)에 참석하여 '충북문화관' 건립의 시대적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도민 모두가 동참하여 건립하고자 제안했었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충북의 문학 보석들을 한 곳에 모아 연구히 보존하면서 문인들은 물론 충북도민들의 정신적 지주와 문학 적 삶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충북문화관' 건립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중 지사님 본 의원은 충북의 문항이 넘치는 문학명품, 격조 높은 전국 최고의 순수문학 명품인 '복합 충북문화관'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제303회 임시회

성인지정책 강화를 촉구하며



정지숙 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여성정책 전문가, 여성정책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가족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2년부터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정책, 그리고 법안의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과 법·제도가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

여성연구원을 설치하고 23명의 연구진을 두어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충남의 경우도 10명의 연구원을 두어 다문화, 청소년, 가족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여성발전센터 내 연구개발팀을 두고 있으나 연구원은 고작 계약직 2명에 불과합니다.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 성인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되어서 여성정책 연구인력의 확충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윤성욱 의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상태 같습니다. 여전히 시간만 가면 되겠지! 이 번만 지나면 되지! 하는 배짱이 아직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심의에서 저는 변화를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추경의 모든 항목을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삭감하면 사업시행이 안 되고 사업시행이 안 되면 도민이 손해 본다는 생각에 분노를 접었습니다.

예산을 통과 시키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경제적 시행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의원들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이해시키고 예산을 승인받아 도민을 위해 일하실 생각을 하셔야 통과시켜 주면 하고 삭감시키면 안 하고 말지 하는 식의 배짱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도민에게 질 높은 봉사 와 도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성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지난해 9월 5분발언을 통해 우리의, 우리들의, 자세와 각오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예·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삼가해 주실 몇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김영주 의원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지역·기능·규모별로 다양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충북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대표도서관 설치·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시급합니다.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의견 반영과 다양한 지역 내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복지의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도서관을 찾고 도서관을 통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도서관 정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서관은 시험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찾던 열람실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시대, 문화시대, 자치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기반시설로

“구제역 매몰지 관리 강화해야”



김 봉 회 의원

저는 작년 겨울 우리 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의 매몰지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의회에서 매몰지의 사후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 식수 및 지하수 오염 대책’과 ‘구제역 방제와 매몰 그리고 사후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담당 국장은 최선을 다해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의 주장과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된 매몰지 주변은 붉은 침출수, 기름덩어리이며, 수질조사결과 먹는 물도 기준을 초과하였다니 도민은 이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 매몰지에 대한 이상은 없는지, 매몰지 이설 후 기존 매몰지의 오염도 처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기존 매몰지 하류부 처리 대책은 적절한지 등의 사후관리 종합 대책을 되돌아봐 주시고 그 처리 결과를 도민 모두에게 공개하여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위지는 날씨에 구제역 발생이 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철저한 예찰과 예방,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시종 충북호 점검 절실”



김 양 희 의원

이시종 지사 충북호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북발전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단결과 화합에는 관심이 없는 듯 혼란과 분열의 모습을 부채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사께서 도정실패를 피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사실패입니다. 그동안 대다수 언론 매체와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대표적 분야가 보복, 측근, 코드인사입니다. 지사 측근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에 독선적으로 밀어 넣는 것 외에도 무리한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둘째, 지사의 도정실패 근본원인은 조직의 안정성 결여입니다. 지사께서는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합니다. 특하면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업무에 만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근본원인은 정책부재입니다. 지사께서 도정의 방향을 잘 잡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구할 때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정 행정에서 인사, 조직, 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3대 요인입니다. 이 핵심적인 3대 요인이 독선과 아집으로 흔들린 결과가 오늘의 충북호의 모습입니다.

“통합 대학명에 ‘충주’ 살려야”



심 기 보 의원

9월 26일 충주대학교와 철도대학의 통합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종 승인되면서 지난 50년간 충주시민과 고락을 함께 해온 ‘충주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충주대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당초의 통합안은 충주대와 지역사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와 충주시, 충주시민들의 통합안 반대운동으로 충주대 편제정원 감축 규모가 당초 1,076명에서 488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의왕캠퍼스내 교양과목 수강도 최소화 되고 통합지원금도 충주대 70%, 철도대 30%로 대학규모에 맞게 조정되는 한편 충주대 대학원 정원 감축안도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남은 큰 일이 있습니다. 통합대학의 교명에 ‘충주’라는 이름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충주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충주’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키워온 충주대의 사회적·문화적 존재가치를 이처럼 허망하게 포기할 순 없습니다. 통합대학이 ‘충주’라는 이름을 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그동안 대학성장의 뿌리가 되고 거름이 되고 부모가 돼 온 충주시민을 소중히 여기고 결심한다면 쉽게 해결 될 일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제304회 임시회

“충북대 구조개혁 지정 철회를”



이 광 희 의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 충북대가 포함된 것이 정부와 청와대가 부산 경남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북대를 희생양으로 쓴 꼼수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자 공문을 통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문 원안대로라면 경상대와 강원대가 하위 15%에 선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미 각 대학에 공문까지 하달한 평가기준을 9월 1일 '2011년 정보공시 자료'로 변경합니다. 이 자료에는 당초

선정되어야 할 경상대가 구제되고 충북대가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이 사립대인 경남대의 하위 대학선정 이후 경상대마저 구조조정 중점대학에 선정될 경우 PK지역에 심각한 민심이반을 달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아래, 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립대학 구조조정을 이용한 것으로, 교과부를 넘어서 정권차원의 음모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상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북대를 희생물로 전락시킨 원칙 없는 대학구조개혁의 속내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즉시 자진 철회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역사교육 강화로 정체성 확립을”



박 상 필 의원

본 의원은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나라마다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삼기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교육의 현실은 초·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소홀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고구려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지켜져야 할 역사교육 정책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 일관되게 역사교육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이런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역사과목을 3년 중 1년만 주당 1·2시간 공부하고 고입시험에서도 2·3문제 출제되니 역사과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역사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학교에서는 3년동안 주당 2시간 이상씩을 이수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3년 동안에 8단위 이상은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만이라도 고입 선발고사에서 사회과목의 50%이상을 역사에서 출제하고 대학입학 수험능력시험에서도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학생 안전교육 강화 시급”



이 광 진 의원

본 의원은 교육감님이 공약한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세부이행방안 중에서 '학교 안전망 구축'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은 유년기 시절부터 생활화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CCTV나 가로등 설치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도 다양화해야 하며 교육 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내용도 재구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사고와 교통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가 중·고등학생은 물론 어린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역할입니다. 반복된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상황 시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전교육은 되도록 이론적 학습을 줄이고 실제적인 현장 체험형 교육이 되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백곡 119지역대 폐지 재고해야”



김 종 필 의원

최근 70여년 동안 진천 백곡면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담당해온 백곡 119지역대가 폐지되고 하여 지역주민들은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도 소방본부가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 차원에서 119지역대를 통·폐합하기로 함에 따라 백곡 119지역대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119지역대를 폐지시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백곡 119지역대 건축 운

영으로 전담인력을 13개월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발생한 축사화재는 초기진화에 실패해 완전 전소되어 많은 재산피해를 낳았고 산에서 나무를 하던 주민이 다쳐 응급구호를 요청하였으나 초동조치를 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볼 때 119지역대가 폐지 및 통폐합되면 지역의 재난예방과 응급구조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화재발생 시 원거리 출동으로 초기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백곡면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혼자 사시는 집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백곡 119지역대의 존치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시어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회 대변인 김영주 의원 선임



김 영 주 의원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형근) 는 9월 16일 도의회 대변인으로 김영주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김영주 도의회 대변인은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충북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주 대변인은 인사말을 통해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들께 제대로 알려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맞춤형 정책중심 연찬회로 개선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대비 전체의원 연찬회 개최



▲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지난달 20일 실시된 전체의원 연찬회 모습

충청북도의회는 의원들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월 1회 실시하여 오던 전체의원 연찬회를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연찬회와 정책분야 중심의 연찬회로 개선했다.

아울러 일반 정책분야에 대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연 4회 실시하고 전문정책분야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예결특위 포함) 연찬회를 각각 6회씩 실시해 현행 10회에서 40회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는 현안에 대한 사례위주의 실질적인 심사 기법과 리더십, 교양 등 의원들의 사고와 패러다임을 폭넓게 개선하려는 것. 각 소관 실·국·원의 업무가 다양해 직무특성상 매 회기마다 의무적으로 각각 전문가와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10월 20일~21일 이틀간 제천 청풍레이크호텔에서 11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05회 정례회에서 다루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했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한겨레 충청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보받아오”

다음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충청지
역 시·도의회에서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충청타임즈

2011년 09월 07일 (수)
04면 중판



6일 충청도의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가 열리고 있다. /유현미 기자

“사회적기업 육성책 마련해야”

직기업을 수를 매년 2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충북사회적기업협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충북사회적기업의 저변확
대 및 판 확대를 위한 다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6일 충청도의
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직기인 재경지원사업과 관
건 제를 통해 이익이 추구
협의회는 “충북지역은 시

중도일보 청주-청원통합·재정적자 대책 촉구 충북도의회 도정질문… 버스요금 단일화·지방채 보전 등 ‘도마’

충북도의회 장선배(민주당·청주3)
의원은 19일 열린 제 304회 충북도의
회의 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

함에 대해 충북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고 물었다.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나머지 시·군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
소하고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추
궁했다.

장 의원은 “청주와 청원군이 상
회합을 위한 통합 추진방안으로 지
나 4월 버스정비시스템구축과 해파리
통합운행을 이끌어 냈고 ‘청주·청원

특히, 장 의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을 위한 통합 추진방안으로 지
나 4월 버스정비시스템구축과 해파리
통합운행을 이끌어 냈고 ‘청주·청원

동양일보

2011년 10월 28일 (금)
06면 정치

충북도민참여 조례제정 공청회

“도지사 책무 더욱 강화돼야”

충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이 도지사의 책무
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은)는 ‘합
계하는 충북 실현’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충북도 도민
참여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 전문가들과 27일 공청회
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충북도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가 추
진하는 주요사업 정책형성 단계부터 결정·집행까지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
고 밝혔다.

청주대 행정학과 하
물교를 쓰는 조재정교
원도 중요하지만 집행기
부만 맡아가지는 부적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제구 충북주민자치
의 중요성에 비해 충북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어를 위한 사무공간의
실제 운영하는데 어려
충북경찰청 최은정
민참여를 위해 의지표
미흡하고 정보공개청구
해야 한다”며 “조례제
외래야 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
건과 입법예고 등을 토
계획이다.

충북일보

2011년 09월 21일 (수)
04면 정치

충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5본자유발언

“진천·음성 폐기물처리시설에 압축시스템 시급”

이수환 도의원
진천·음성 생활폐기물과 음식배
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도마 위에
있다.

“충북문화관 건립 필요”

장병희 도의원 (교육의원)
은 “지난 2008년 문화
공보부가 주관한 ‘청주문화의 달’ 사업결과 보고
회에서 ‘충북문화관’ 건립의 시급성
을 제기하며 도민 모두가 동행해 건립하고 제
박 의원은 “지난 1년 간 충북도 공무원의 출
자율언론은 임직원들이 인사정보를 사기가 지
해되어 있다”며 “이해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충북도의 현안사업은 물론 158만 도
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
했다.

“인사가 만사다”

박문희 도의원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며 “이인사를 제
도 해야 조직이 잘 돌아가고 업무도 순리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유명 스포츠스타만들어보자”

하재성 도의원
하재성(교육의원)
의원은 “충북이 현
제 가장 자랑거리와 각종 경기장이 잘 갖추어
세계적인 스포츠스타 양성의 매카로 확실한 자
라 할때문에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한 사람의 유명 스포츠스타가 가
지는 부가가치가 천문학적이란 것은 많은 사
계적인 스포츠스타가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 하 의원은 “스포츠스타가 전무후무한 스포
츠스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도 확대한다”며 “이처럼 지사외 하
공교육이 중점적 목표를 가지고 스포츠
타만에게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
임재환기자

및 철출수 인축처리비 13억 원 부담
등에 대해 감리인과 사업업체 지 분
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각시설을 5월부
터 운영까지 시범사업에본 결과, 현
재의 소각시설이 1일 50톤 처리능
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하루 분량
약 60~70톤이 반영되는 실정으로 1
일 처리능력을 초과해 반영되는 폐
기물은 소각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기물로 매립돼 도마로 수일, 한
정도였으며 유발되고 있다”며 “압축
포장시스템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임재환기자

“인사”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며 “이인사를 제
도 해야 조직이 잘 돌아가고 업무도 순리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문희 도의원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며 “이인사를 제
도 해야 조직이 잘 돌아가고 업무도 순리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재성 도의원
하재성(교육의원)
의원은 “충북이 현
제 가장 자랑거리와 각종 경기장이 잘 갖추어
세계적인 스포츠스타 양성의 매카로 확실한 자
라 할때문에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한 사람의 유명 스포츠스타가 가
지는 부가가치가 천문학적이란 것은 많은 사
계적인 스포츠스타가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 하 의원은 “스포츠스타가 전무후무한 스포
츠스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도 확대한다”며 “이처럼 지사외 하
공교육이 중점적 목표를 가지고 스포츠
타만에게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
임재환기자

중부매일

2011년 09월 22일 (목)
02면 중판

제30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정책복지위 “수요예측 미흡” 질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의 위
원장 원기환은 21일 제3회 회의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도정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예산안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운영내
容도 확정하지 않은 채 5억원에 추
가된 편입한 것과 충청학교 CCTV
안개 추가사업의 사업지역 사유 등
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정책복지위 “수요예측 미흡” 질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의 위
원장 원기환은 21일 제3회 회의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도정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예산안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운영내
容도 확정하지 않은 채 5억원에 추
가된 편입한 것과 충청학교 CCTV
안개 추가사업의 사업지역 사유 등
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차 구
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올해

노봉기 의원(비례, 민주)은 보
시청 평가 인공시설용 창후와 추
지역에서 아직 200만원의 환경

개산비가 지원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선에 의원
 열고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과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
사하고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는 신규사업과 함께 당초예산에
상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
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김현수 의원(제2, 한나라)은
학술연구비를 편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에야 예산부서의
POOL, 사업비가 아닌 부서별로 별
도 편성에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 신진)은 도
정 학술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내

충청매일

충북도의회, 충북대 '구조개혁 지장' 반발

건의문, 교과부 등 전달

충북대 구조개혁 대상지정과 관련, 충북도에 이어 충북도의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날 30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지정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날 23일 교

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에 충북대학교가 포함·지정된 것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충북대학교를 지역적 형편이나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로 구조개혁 추진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명분까지 뒤흔개하는 정책"이라며 교과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구성원들이 합

동양일보

국립암센터 분원 '반드시 오송에'

2011년 09월 30일 (금) 01면 중상

충청권 3개 시·도의회 대토론회

충북단지 연계 바이오 클러스터 허브 역할 정치논리 차단... 평가기준 가중치 사전공개 해야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뜨겁다. 특히 밀집용역과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입지 결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지 기준과 가중치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암센터 분원을 오송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모색하고 논리를 개발, 발표할 권유 분의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충북은 지난 2009년부터 2300여억 예산규모의 암센터 분원을 오송에 건립기 위해 국립암센터와 공동발전 의견 교환과 청와대·국회·보건복지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후 지난 4월 대구가 유치권에 뛰어 들면서 정치적 논리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암센터 분원 유치자가 체계적일 하"고 말했다. 이어 "대구"는 경북·대형의원 4곳의 임상시험병원임이 있는데 반해, 충북의 경우 치료목적의 일반병원 외에 임상시험병원인 한 포도 알을을 고려할 때 암센터 분원은 반드시 오송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대구"는 기존 임상시험병원 등의 인프라를 접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본회의 기능(임상시험, 진료, 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와 관련해 "충북도가 오송과 대구"를 분산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바이오산업 중심의

충청타임즈

충청권 시·도의회 암센터 유치 맞손

2011년 09월 22일 (목) 04면 중상

오는 29일 오송유치 대토론회... 입지 당위성 개발·적극 홍보키로

한 유치 경쟁을 벌이 분원의 오송유치를 위 시·도의회가 손을

따라 29일 오후 의실에서 충청권 3 공동 주관으로 '국립 2층 유치를 위한 중 가 개최된다.

본회의는 암센터 분원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개

는 한국생명공학연구 터장이 '국립암센터 이'가 하나만 주제 발

한 교수, 한국신약개발 연구개발을

단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도의회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논리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법도민 가두 서명운동, 서명부 관리기관 전달, 관계 정부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충북도는 오송이 대구보다 입지가 뛰어나다는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다음 달 초까지 암센터 직원들과 의료계 종사자, 관련 기업인, 학자 등 다수의 암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조사를 통해 도는 경기도 일산의 암센터 분원과 1시간 거리 에 있는 오송이 분원의 최적지임을 증명한다는 구상이다.

역 결과물을 11월중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 지역 국회의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영호권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날 3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 이종철경의회의는 지난 16일 보령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요청한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대전시도 자체적인 서명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충북도는 충청권 주민 100만명 이 이상이 다중 서명부를 작성

충청타임즈

2011년 09월 20일 (화) 05면 중상

본회의의 인터넷 생중계한다 충북도의회 오늘부터

충북도의회는 19일 의정 활동상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20일부터 본회의 회의상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20일 첫 생방송을 한 뒤 30일 폐회식도 중계할 예정이다.

의회는 당분간 정례회·임시회 본회의를 중계한 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등 특별위원회 회의의 모습도 생중계를 방침이다. 충북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as-

sem.cb21.net)에 접속해 '인터넷방송' 카테고리 선택하거나 인터넷생방송 전용 홈페이지(http://assem.tv.cb21.net)를 접속하면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도정질문, 의안처리,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형근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회의 상황을 실시간 생방송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성준기자



충청매일

충북도의회 집행부 견제 강화

2011년 10월 06일 (목) 04면 중상

행정감사 기간 연장·과태료 부과기준 확대

충북도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를 열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태로 부과기준 확대하는 주요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는 지난날 20일 1차 운영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조폐안 발의시 발의위원과 찬성의원 구분 조문 신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 이상으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산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반상 및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시청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에 대해

서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충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연간 총 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정례회 회의일수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박문의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가 좀더 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돼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며 "이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되는 시점이후 다음 회기년도에 산안을 충분히 검토·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우찬기자 ehe0307@ccdn.co.kr

충청투데이

2011년 10월 28일 (금) 04면 정치

충북도의회 제출 '땀 주변 지원사업 확대 건의안' 채택

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제10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27일 오후 5시 충북 청원군 문이면 청남대 세미나실에서 충북도의회 박문희(운영위원장) 의원의 주제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땀 주변지역 확대 및 주민만족도조사 정례회 건의안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1999년부터 시행 중인 땀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원 사업비율에서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박문희 의원의 건의안에는 땀건설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주민만족도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위원장에게 밝혔다.

동양일보

2011년 09월 02일 (금) 18면 인물



충북도의회 요양시설 방문 충북도의회 김형근 의장과 박문의 운영위원장이 1일 새 청주노인요양원과 대성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생활용품 전달하고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대표단 충북도의회 방문

충청북도의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대표단이 9월 23일 도의회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오송차이나문화테마파크 조성과 계림시와 연계한 관광산업 특화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근리 사건현장 방문

정책복지위원회는 9월 22일 영동 노근리 사건 현장을 방문해 총탄자국 등 만행장면을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기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방문

산업경제위원회가 9월 22일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영동)를 방문해 송영각 소장으로부터 연구소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우수학교 방문

9월 22일 경기도 우수학교인 광주남한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특성화 교육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소방가족 축하·격려

간설소방위원회는 10월 19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1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하·격려했다.

▶ 글마루작은도서관 방문

행정문화위원회는 9월 27일 제정한 「충청북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와 관련, 청주 개신주공1단지 내에 있는 글마루작은도서관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 2011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축하·격려

10월 13일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2011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에 김형근 의장과 도의원들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특산품을 둘러보고 있다.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방문

김형근 의장이 10월 20일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31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현지를 방문해 체전에 참가한 충북 대표선수들을 격려했다.



암센터 분원 오송이 최적지

박 문 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암(癌)은 우리나라 국민 40~50대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다. 보건복지부는 암 생존율을 당초 54%에서 67%로 상향조정하는 등 암 정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암 정복의 핵심기관인 국립암센터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 욕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질 암센터 분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원이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우수한 입지를 선정하는 일이다.

암센터 분원의 핵심 역할은 바이오 신약 중심의 항암신약 개발, 항암치료기기 개발, 항암치료법 개발 및 국민 대상 암 예방 사업 수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약 및 치료기기 관련 허가를 담당하는 유관 국책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성과 접근성, IT·BT 융합기술기반 네트워크 가능성, 그리고 전문 연구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북 오송은 단연 돋보이는 최고의 입지 지역이다.

오송은 국내 유일의 바이오 신약 및 BT기반 첨단의료기기 특성화 단지일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6개 유관 국책기관이 밀집해 있다. 또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 핵심 연구기관 유치와 항암치료법 개발 실험을 위해 중요한 중이온 가속기 보유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연계협력 및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

시킬 최적의 조건임을 보증한다.

교통 편리성 측면에서도 공항, KTX, 고속국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전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껏 암 진료에서 소외되었던 중·남부지역 암환자들의 경우 암센터 이용에 따른 소요시간과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우수한 국내외 전문 인력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주거, 교육, 문화 등 편의시설 여건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비용도 충북 오송의 강점이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충북 오송과 대구를 후보지로 암센터 분원 입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제시되었듯, 암센터 분원은 국민들의 건강권, 특히 암 생존률 제고와 직결된 국책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입지선정이 과거 첨단복합단지 선정 등의 경험에서처럼 정치적 논리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입지선정이 요구된다.

만일 분원설치가 과학적 논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는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게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도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충청북도의회가 충청권 3개 시·도와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도민들의 역량과 의지를 집결하면서 암센터 분원유치에 적극 나서는 이유다.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 되기

전응천 의원 (교육위원회)

40여년을 몸담아오던 교직을 떠나 의원이 된지도 벌써 1년 3개월이나 지났다.

이 기간은 주민이 선출해 준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교직에 있었던 자세와는 다른 새로운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잘 적응이 되지 않았던 기간이었다. 같은 직장에서 동료와 선배로 일하던 옛 동료들에게 주민의 대표로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잘 하라고 질책하는 것이라든지, 이러 저러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책임 추궁하듯 따지는 것 등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동안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근무할 때 인지하지 못해 소홀히 했던 많은 업무들이 새삼스레 눈에 띄고 자성도 하게 되었으며 이를 집행부에 적극 권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 다르게 나를 포함한 교육의원 4명과 도의원 3명 등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과 일반 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때 이에 대한 의결이 문제였다.

늘 교육위원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로 타협점을 찾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학원조례, 야간 자율학습 등 등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교육현안은 늘 방송을 타고 언론의 도마 위에 올려져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에는 어려움과 신중함이 뒤따랐다. 모 언론에서는 ‘교육의원 4명은 교육현안에 뒷짐을 지고 있다’ 라고 우리의 의정 활동에 대해 폄하하기도 했다.

그동안 20개 소관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2회, 행정사무감사 1회, 예산심사 5회, 무수히 많은 현장방문과 위원회 의정활동 목표인 ‘작은학교 희망 찾기’ 일환으로 여러 학교 방문 등 적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개인적으로는 충북교육청의 보조금 관리조례를 손질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미진한 마음이 든다. ‘내가 과연 진정한 주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이었나?’ 하는 자성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조만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된다.

본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사업 우선순위 기준은 적정한지,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사업계획은 충실한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점은 없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보고 과감하게 손질할 것은 손질할 생각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지적되었던 문제에 대한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책대안적인 감사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보다 내실 있는 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주민의 대표가 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청원안내 |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시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1~5155

| 민원안내 |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8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 화 : 043) 220-5151
- 팩 스 : 043) 220-5159

| 방청안내 |

■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